세계 속의 영국과 미국

글로벌 학부 영미학 전공
김형엽

11

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 비교(1)

영국영어와 미국영어

왜 영국 외에 지역에서도 영어를 모국어로 쓰게 되었는가?

https://www.fluentu.com/blog/english-kor/%EC%98%81%EA%B5%AD-%EC%98%81%EC%96%B4-%EB%AF%B8%EA%B5%AD-%EC%98%81%EC%96%B4-%EC%B0%A8%EC%9D%B4/

영국영어와 미국영어

미국은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.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 영어는 영국 영어와 240여 년 동안 서로 다른 생활 환경에서 성장, 발달했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. 미국과 영국 역시 그 거리만큼이나 다른 언어가 된 것이다. 최근에는 미국의 지위가 높아져, 오히려 미국 영어가 영국 영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.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차이로는 크게 발음법, 철자, 단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도록 할 것이다.

영국영어와 미국영어

R 발음

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차이점이다.
단어 끝에 “r” 이 있을 때 미국에서는 대부분 r을 충실하게 발음한다.
하지만 대부분의 영국 영어에서는 발음하지 않는다. computer가 쉬운 예 이다.

이러한 발음 차이는 r이 맨 끝에 왔을 때의 경우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. 아무리 영국 영어라도 r이 단어의 첫머리에 있거나 (예: “red” 또는 “Ryan”) 가운데 있으면 (예: “barrier “나 “parent “) 일반적으로 r을 충실하게 발음한다. 단, r이 단어의 가운데 있는 경우 영국 영어에서는 보통 “좀 더 부드럽고” 강하게 말하는 하는 경향이 있다.
한편 일부 미국 사투리에서도 단어의 맨 끝에 오는 r을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한 악센트는 보스턴과 같은 미국 북동부 지역과 미국 남부 지방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이다.

https://www.fluentu.com/blog/english-kor/%EC%98%81%EA%B5%AD-%EC%98%81%EC%96%B4-%EB%AF%B8%EA%B5%AD-%EC%98%81%EC%96%B4-%EC%B0%A8%EC%9D%B4/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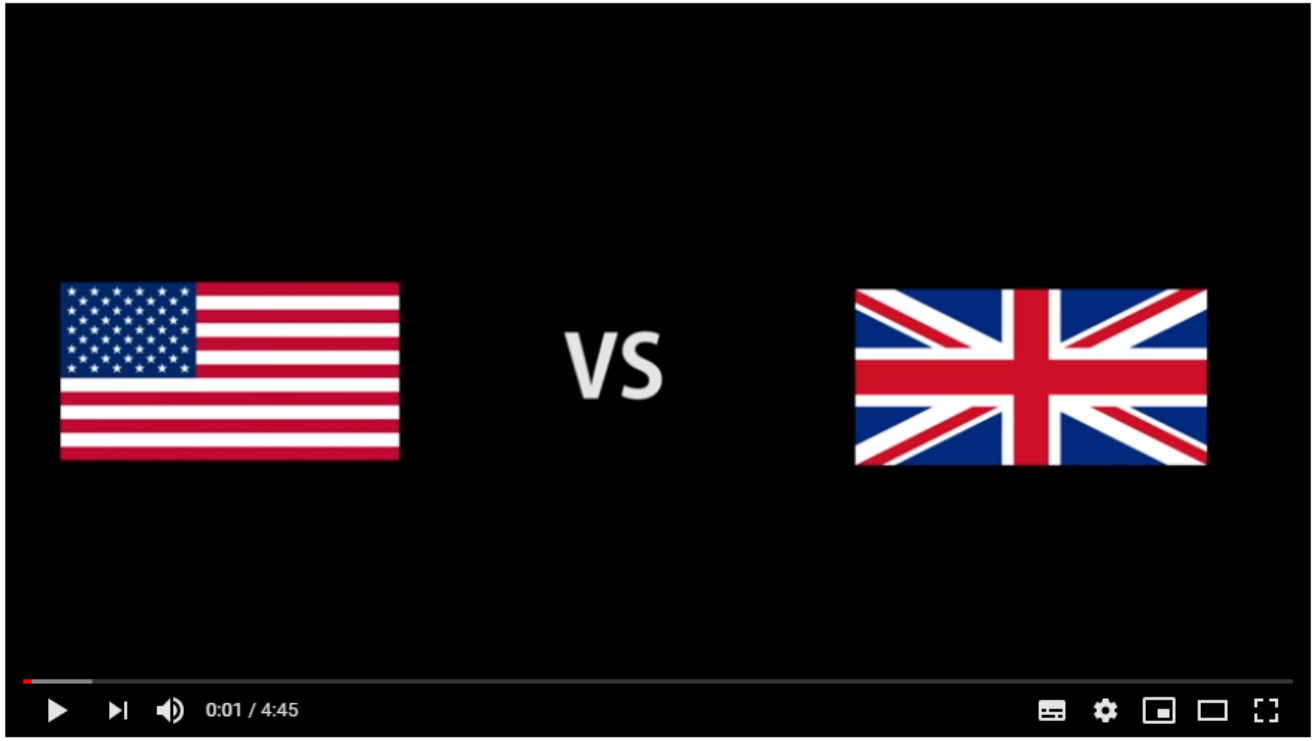
영국영어와 미국영어

T 발음

미국식 영어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“t” 를 “d” 처럼 발음한다는 것이다. 영국에서는 조금 덜 일어나는 현상이며, 오히려 t를 더욱 분명하게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다.
“computer” 를 예로 계속 활용할 수 있다. “t” 발음에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면, 영국 발음에서 더욱 t가 선명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“bitter “와 같이 “t” 가 두 번 들어간 “tt” 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. 하지만 미국 영어에서 “bitter” 는 기본적으로 “bidder” 와 발음이 같다.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도 말이죠. 이 비슷한 예로 “litter” , “better” , “butter” 에서도 둘 사이의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.

https://www.fluentu.com/blog/english-kor/%EC%98%81%EA%B5%AD-%EC%98%81%EC%96%B4-%EB%AF%B8%EA%B5%AD-%EC%98%81%EC%96%B4-%EC%B0%A8%EC%9D%B4/

영국영어와 미국영어



데이브 + 영국남자 [미국 영어 VS 영국 영어] AMERCAN ENGLISH VS BRITISH ENGLISH - Featuring Koreanenglishmen

조회수 3,466,364회 3.2만 307 공유 저장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1S2i7A35e9Y

THANK YOU